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골드막삭스가 특별회 KOCHAM 회원사를 위해 제공한 것입니다)

[경제]
- Bloomberg: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물가 여전히 불안… 지속 관리 필요"

[오일]
- WSJ 유가, 러시아 제재 유예 조치와 중동 리스크 저울질 속에 하락

[주택]
- YahooFinance: 미 주택 구매 취소율 역대 최고치로

[중국 경제]
- WSJ: 중국, 수출 호조에도 불구 심각한 내수 침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미 고속도로 무인 트럭 등장… 물류 산업 지평 바꾼다
- Bloomberg: 스포츠에서 경영 지혜 얻는 CEO들… 리더십과 팀워크

[KMI 공급망 브리핑]

[Papers: Insights for KOCHAM from Goldman Sachs]
- 주요 이슈: 치솟는 국채 금리, 얼마나 우려해야 할까?
- 미국 증시 전망: 호실적 행진, 그러나 거품은 아니다
- 고금리와 고유가 파도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견고한 이유는?
- 미국 증시 전망: AI 설비투자, 손익분기 매출, 그리고 AI 트레이딩에 반영된 기대치
- 주요 이슈: '투명성 낮추기'로 선회하는 연준 진단
- 글로벌 경제 논평: AI가 세계 고용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글로벌 경제 논평: AI가 세계 고용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미국 경제 분석: AI 투자가 밀어내고 있는 것(구축 효과)은 무엇인가
- 주요 이슈: AI가 불러올 일자리 대재앙인가?

[오디오: Insights for KOCHAM from Goldman Sachs]
- 연준의 투명성 축소가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에 의미하는 것은
- 자본시장을 위한 AI 시스템 구축 전략
-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이유
- 경유 및 휘발유 공급 전망은 어떠한가?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Hassett Says CPI Data Shows Inflation Needs ‘Some Work’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물가 여전히 불안… 지속 관리 필요"

- 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최근 소고기와 계란 값이 내렸지만, 전체적인 물가를 잡으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 그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지난 석 달 동안은 물가가 잘 잡히는 듯했으나, 다시 고삐를 죄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물가 상승이 하락 흐름의 정체인지 일시적 현상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한 달 전보다 0.6% 올라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물가도 0.3% 올라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Fall as Traders Weigh Russia Sanctions Waiver, Middle East Risks
유가, 러시아 제재 유예 조치와 중동 리스크 저울질 속에 하락

- 오늘 월요일 국제 유가는 트레이더들이 미국의 러시아 신규 제재 유예 결정 등에 주목하면서 하락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러시아에 대해 일부 제재와 관세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금요일의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했다. 트레이더들이 미국의 신규 대 러시아 제재 유예 결정과 지속되는 중동발 공급 리스크를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
- 12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8.72달러로 1.0% 하락했으며,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역시 배럴당 98.40달러로 0.6% 내렸다.

기사

[주택]

YahooFinance: Homebuyers are canceling sales at near-record rates
미 주택 구매 취소율 역대 최고치로

- 미 주택 구매 계약 취소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치솟는 모기지 금리로 인해 구매자들이 계약을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플랫폼 Redfin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계약 취소율은 14.5%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주택 계약 취소는 점검 과정의 문제, 대출 승인 거절, 심리적인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다만 최근처럼 매물 물량이 늘고 구매자의 협상력이 커진 시장 상황에서는 계약 철회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s Export Boom Masks Deep Economic Problems at Home
중국, 수출 호조에도 불구 심각한 내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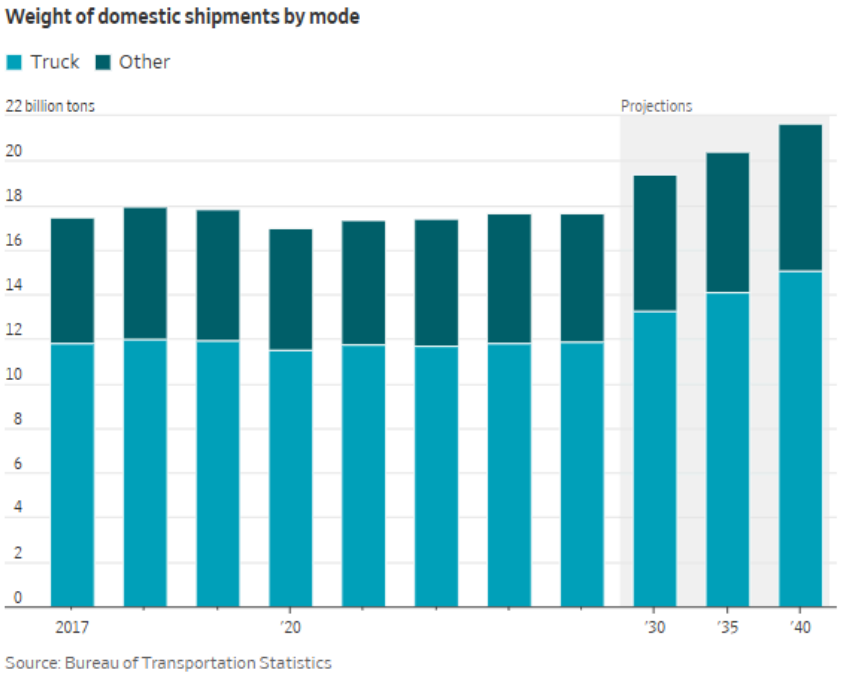
- 중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5%를 기록했다.
- 하지만 수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올해 1~3분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25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으며, 이 중 부동산 투자는 21% 급감했다.

기사

[비즈니스외 기업동향]

WSJ: The Most Polite Trucker in America Is a Driverless 18-Wheeler
미 고속도로 무인 트럭 등장… 물류 산업 지평 바꾼다

- 미국 핵심 화물 수송도로인 텍사스 주간고속도로(I-45)에 무인 자율주행 대형 트럭이 본격 등장했다. 차선 양보 등 운전자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해내며 물류 현장에 자리매김을 시작했다.
- 자율주행 기업 오로라 이노베이션(Aurora Innovation)은 첨단 감지 시스템이 돌발 상황을 미리 알아채고 피하는 덕분에, 급제동이나 경적 없이도 매끄러운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무인 대형 트럭의 고속도로 투입은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 도심 로보택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간선 물류 영역으로 빠르게 영토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

Bloomberg: What CEOs and Founders Have Learned From Sports
스포츠에서 경영 지혜 얻는 CEO들… 리더십과 팀워크

- 글로벌 기업 CEO와 창업가들이 스포츠를 통해 위기 극복 능력과 협업 등 핵심 경영 역량을 배우고 있다.
- 테니스와 스쿼시를 결합한 파델(Padel)을 즐기며 사업적 직관을 다지는 CEO부터, 딸의 플래그 풋볼 경기를 보며 리더십을 되새기는 여성 리더에 이르기까지 분야는 다양하다. 이 기사에서 경영진 14인은 직접 선수로 뛰거나 경기 관람을 즐기면서 변화 적응력, 강력한 팀 구축 노하우를 습득한다고 입을 모은다.
-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스포츠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업무 효율성과 조직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주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호르무즈 봉쇄 위기와 고유가 재발… 중동·우크라 정세 격화

- 이란이 미국과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 협상안을 제안했다. 미군은 해협 내 선박 운항의 97%가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이란이 슈퍼 유조선 기뢰 충돌 영상을 공개하고 UAE 인근에서 예인선 피격이 발생하는 등 해상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 역내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사우디 연합군 헬기 추락으로 후티 반군과의 교전 가능성이 불거졌고, 이집트는 사우디 방어를 위한 파병 검토에 나섰다. 이란 역시 미사일 전문가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며 장기전 대비 태세를 갖췄다.
-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에너지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브렌트유가 110달러에 육박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러시아 제재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다.

[Papers: Insights from Goldman Sachs]

Top of Mind: Higher bond yields: how concerning?
주요 이슈: 치솟는 국채 금리, 얼마나 우려해야 할까?

- 글로벌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와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 왔다.

- 하지만 유럽 국채 시장을 필두로 부담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금리의 단기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견조함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잠재된 취약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지 분석한다.

기사

US Equity Views: Over-earning, but not an earnings bubble
미국 증시 전망: 호실적 행진, 그러나 거품은 아니다

- S&P 500 기업들의 2026년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4개 분기 누적으로도 26%나 증가했다.
- 지난 30년간 이 같은 순이익 성장 속도를 상회했던 시기는 2010년과 2021년의 경기 침체 직후 반등기뿐이었다.

기사

US Daily: Why Has the US Economy Been So Resilient to Higher Rates and Higher Oil Prices?
고금리와 고유가 파도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견고한 이유는?

- 골드만삭스는 미 3분기 경제성장률을 연율 3.4%, 2026년 전체 성장률(Q4/Q4 기준)을 2.2%로 추정한다.
- 이는 잠재 성장률 추정치에 근접한 수준이자, 대폭적인 금리 인상과 유가 급등이 있기 전인 연초 전망치보다 불과 0.3%p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 이처럼 커다란 충격 속에서도 미 경제가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짚어본다.

기사

US Equity Views: AI capex, required revenues, and what's priced in the AI trade
미국 증시 전망: AI 설비투자, 손익분기 매출, 그리고 AI 트레이딩에 반영된 기대치

- 미국 내 대형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2026년 8,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시장 컨센서스는 2027년 1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기본 전망으로는 2027년 설비투자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계속 증가하겠지만, 최근 분기들과 비교할 때 투자 증가율과 상향 서프라이즈의 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사

Top of Mind: Assessing a Less Transparent Fed
주요 이슈: '투명성 낮추기'로 선회하는 연준 진단

-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투명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가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일지,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일지, 그리고 자본시장과 거시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단한다.

기사

Global Economics Comment: Is AI Impacting Global Labor Markets?
글로벌 경제 논평: AI가 세계 고용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은 특정 분야에 한정적이지만 분명하다 반면 여타 국가에서의 증거는 아직 제한적이다.
- 본 보고서는 미국 외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AI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한다.

기사

US Economics Analyst: What Is AI Investment Crowding Out?
미국 경제 분석: AI 투자가 밀어내고 있는 것(구축 효과)은 무엇인가?

- 2026년 미국 내 AI 투자 규모는 미 GDP의 약 2%에 달하는 총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최근 몇 분기 동안 기업 고정투자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 이처럼 급격한 AI 지출 증가가 다른 경제 활동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밀려남 현상(Crowding out)'을 유발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기사

Top of Mind: An AI Job Apocalypse?
주요 이슈: AI가 불러올 일자리 대재앙인가?

- AI 역량의 비약적인 발전과 기업들의 빠른 채택 속도로 인해 2020년대가 지나기 전 대규모 일자리 상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늘고 있다.
- 우려하는 'AI로 인한 고용 대란'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검토한다.

기사

[AUDIO 오디어: Insights from Goldman Sachs]

How Will Less Fed Transparency Affect Markets and the Economy?
연준의 투명성 축소가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의 투명성을 축소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 Donald Kohn, Stephen Miran 전 연준 이사, 그리고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리서치 총괄인Jan Hatzius가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연준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기사

What a Fed Rate Hike Could Mean for US Stocks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에 의미하는 것은

-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 하지만 골드만삭스 FICC/주식 Cross Asset 영업 총괄 Jonathan Shugar는 추가 인상이 반드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 2분기 강력한 기업 실적과 10년 평균 수준에 위치한 주가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제시하며, 연준 금리 인상이 AI 투자에 미칠 영향 및 소비자 경험 관련주에서의 기회를 함께 다룬다.

기사

Building AI Systems for Capital Markets
자본시장을 위한 AI 시스템 구축 전략

- 골드만삭스의 기관 및 기업 고객용 디지털 플랫폼 '마키(Marquee)'를 총괄하는 Chris Churchman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AI 제품 개발 전략과 성공적인 구축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기사

Why Markets May Be Pricing in Too Many Fed Rate Hikes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이유

- 골드만삭스 부회장이자 전 달라스 연준 총재인 Rob Kaplan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경제 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연준의 긴축 기조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 AI 인프라와 국방 지출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주택 및 자동차 등 금리 민감 섹터는 이미 고금리로 힘겨워하고 있어 연준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진단한다.

기사

What Is the Outlook for Diesel and Gasoline Supplies?
경유 및 휘발유 공급 전망은 어떠한가?

-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 속에서도 원유 시장은 놀라운 견조함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정제유(경유, 휘발유, 항공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기미는 여전히 적다고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총괄 Nitin Jindal은 지적한다.

- 아울러 에너지 파동에 대한 중국의 유연한 대응 전략과 겨울철을 앞둔 유럽 천연가스 가격 전망도 함께 짚어본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물류 충격 확산

- 호르무즈 해협에서 싱가포르 선박 2척이 피격돼 1척이 기뢰 충돌로 침몰했다. 공격 건수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동량이 급감했다.
-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본사 및 공항 공격으로 아람코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리야드 공항은 10월 17일까지 폐쇄돼 항공편 3,100편이 취소됐다.
- 이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106.60달러로 급등하고 유조선 운임은 7배 폭등했다. 여파로 미 9월 CPI가 3.7% 상승해 예상을 상회했으며, IEA는 경유 부족이 2027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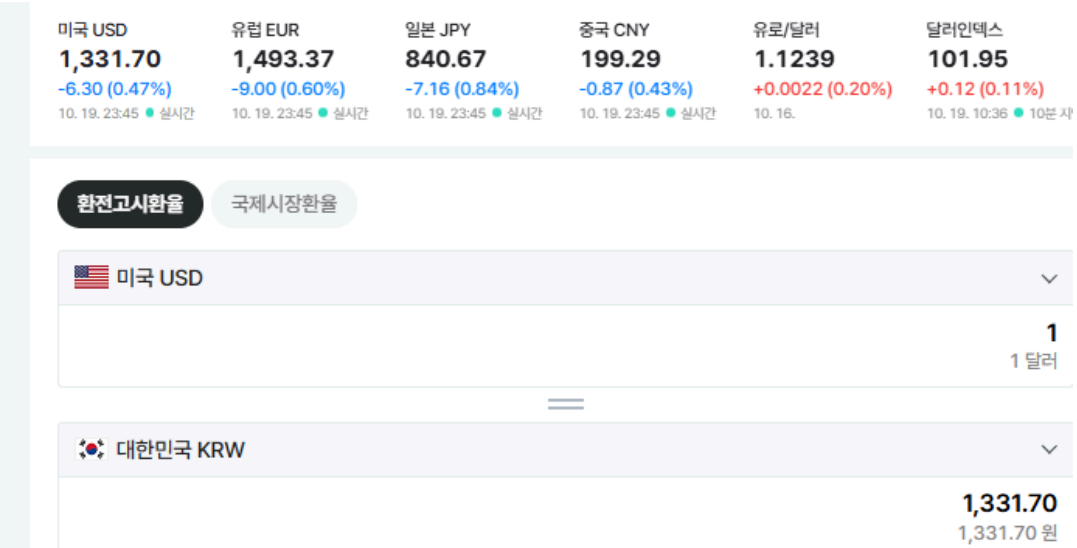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1,958.30	-43.2	-0.08%
US 500	7,705.60	+46.2	+0.60%
Dow Jones	51,942.91	-59.50	-0.11%
S&P 500	7,705.63	+46.19	+0.60%
Nasdaq	26,507.24	+367.21	+1.41%
S&P 500 VIX	17.90	-2.09	-10.46%
Dollar Index	101.74	+0.080	+0.08%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6/32	5.466	0.041
10-Year Note	4.625	-4/32	5.133	0.048
7-Year Note	5	-26/32	5.030	0.063
5-Year Note	5	-3/32	4.932	0.056
3-Year Note	4.875	-1/32	4.859	0.049
2-Year Note	4.75	-23/32	4.768	0.053
1-Year Bill	0	1/32	4.464	0.048
6-Month Bill	0	1/32	4.369	0.036
3-Month Bill	0	0/32	4.183	0.010
1-Month Bill	0	0/32	4.017	0.010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